

# 러시아의 유라시아 영향력 인식과 카스피해 입장 변화

손무갑\*

- I. 서론
- II.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
- III.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
- IV. 러시아의 유라시아 개발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변화
- V. 결론

## ◀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왜 러시아가 카스피해 협약에서 카스피해 횡단 노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입장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변화의 원인으로 서방으로부터의 고립과 아시아-태평양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상승을 제시하지만, 서방의 영향력을 허용할 수 있는 입장 변화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의 원인으로 유라시아 개발에 따른 유라시아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시한다.

**주제어** : 유라시아, 카스피해, 러시아, 파이프라인, 카스피해 협약

## I. 서론

2018년 8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악타우에서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aspian Sea, 이하 카스피해 협약)”이 체결되면서 소련 해체 이후 지난 30년 가까이 끌어온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연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e-mail: son990414@gmail.com

안국으로 두고 있는 카스피해에는 다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때문에 카스피해는 연안국들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sup>1)</sup>

소련 붕괴 이전 카스피해는 소련과 이란 단 두 국가만이 연안국이었기 때문에, 크게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만한 협약과 관행을 통해 서로 지배해 왔다.<sup>2)</sup>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연안국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카스피해는 분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서방 에너지 기업들이 앞다투어 개입을 천명하면서 분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과거 러시아는 카스피해의 공동 이용을 주장했다. 카스피해와 관련이 없는 비연안국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배타적 해저 분할을 원하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여 2003년 해저는 중간선을 따라 배타적으로 분할하고, 수역은 공동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저 구획에 관한 3국간 협정(The agreement on the crossing point of Caspian Seabed co-linear areas among the Republic of Azerbaijan, the Republic of Kazakhstan and the Russian Federation, 이하 3국협정)을 체결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 협정은 5개 연안국 모두가 참여한 협정은 아니었기에, 약 20년간의 분쟁과 논란을 겪은 후 2018년 카스피해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리고 연안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카스피해 협약은 기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이 체결했던 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입장이 조금 더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가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카스피해의 해저를 통과하는 수송로를 양자 협정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4)</sup> 물론 2003년 체결되었던 카스피해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Caspian Sea)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비연안국의 군대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나,<sup>5)</sup> 이전에 러시아가 줄기차게 카스피해 해저 통과 노선을 반대해왔던 것을 볼 때, 이러한 변화는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연안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1) 하채림, “카스피해는 특수지위 바다”...러시아 등 연안국, 활용원칙 합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2052051108?input=1195m> (검색일: 2020.09.20.).

2) 정옥경,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슬라브학보』, 제21권, 제2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6, p. 386.

3) 이현아, 제성훈, “해양경제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p. 88.

4)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21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p. 175.

5) 이현아, 제성훈, “해양경제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pp. 90-94.

EU) 등 서방 측에 매우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것<sup>6)</sup> 역시 사실이다.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지배하고자 했다. 카스피해 연안국들은 자원을 수송하는 데 있어 러시아 영토를 통과하는 노선에 의존하고 있기에 이를 유지·강화시켜 카스피해 영향력 확보와 동시에 에너지의 수출을 독점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다른 연안국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노선을 확보하여 수출 노선을 다변화하고자 하였다.<sup>7)</sup> 러시아의 카스피 지배 목적이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는 것<sup>8)</sup>이었기 때문에,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연안국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의 입장이 변화하였는가? 서방 기업 혹은 국가에 의해 카스피해 횡단 노선이 건설되면, 카스피해를 지배할 수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대해왔다.<sup>9)</sup> 그러나 카스피해 협약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뒤집고 양자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의 동의가 없이도 횡단 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 러시아는 이러한 조항에 동의하였는가? 왜 기존의 입장에서 횡단 노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는가?

카스피해 협약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입장 변화는 과거 러시아가 카스피해와 관련하여 보여주었던 입장 변화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2003년 3국협정은 카스피해 협약과 달리 서방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있는 해저 횡단 노선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으며, 2000년대 중반 아제르바이잔의 BTC 노선 건설 허용 입장 선회 당시에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정책이 궤도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카스피해 협약과 동일선상에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하 푸틴)의 취임 이후 러시아는 독자적 강대국을 목표로 하여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하 옐친) 시기 역량 부족으로 수행되지 못했던 대외노선을 정립하게 되었다.<sup>10)</sup> 푸틴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단극체제를 견제하는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라시아 근외지역에 우선적이고 사활적 지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유라시아를 통합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입장으로 발전하여 유라시

6) Mehmood-Ul-Hassan Khan, "Economics of Caspian Sea," *Defence Journal*, Vol. 22, No. 2 (2018), p. 76; Leman Zeynalova, "Trans Caspian Pipeline would benefit both Turkmenistan and Azerbaijan," <https://en.trend.az/business/energy/3150249.html> (검색일: 2020.09.20.).

7) 제성훈,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제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보』, 제26권, 제1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1, pp. 134-138.

8) 위의 문헌, pp. 145-148.

9) Daniel D. Stein, "Trans-Caspian Pipeline—Still a pipe dream?,"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nergysource/trans-caspian-pipeline-still-a-pipe-dream/> (검색일: 2020.09.20.).

10) 강봉구,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과 2012년 이후 대외정책의 영향 변수들," 『평화연구』, 제20권, 제1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2, pp. 172-176.

아에서 러시아의 우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1)</sup>

따라서, 2018년 체결되었던 카스피해 협약을 전후로 한 러시아의 입장은 다른 카스피해 입장과는 달리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의 틀 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가상, 그리고 서방의 영향력과 관련한 부분에서 2000년대 초중반의 두 사건은 카스피해 협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적극적인 항구, 교통로 등의 개발을 보여주고 있다.<sup>12)</sup> 러시아가 유라시아 통합과 관련하여 보여주고 있는 시각을 볼 때,<sup>13)</sup> 최근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변화한 시각을 기반으로 유라시아의 개발을 통한 통합을 전제로 대외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왜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입장이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러시아의 유라시아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이 변화한다.”를 가설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종속 변수로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를, 독립 변수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영향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설정,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를 검토한 후 카스피해 협약에서의 러시아의 입장 변화와 관련, 한계를 검토한 후 3장에서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개발,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검토한 후 5장 결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연구의 시사점, 한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

### 1. 유라시아 통합의 기본적 원칙과 배경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잃어버린 강대국의 지위를 다시 찾고자 한다. 엘친 시기 러시아는 소련 해체의 후유증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혼란기를 겪었지만, 푸틴 이후 러

11) 강봉구,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주요 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12, pp. 132-137.

12) Global Construction Review(<https://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russia-approves-16bn-caspian-seaport-increase-trad/>), “Russia approves \$1.6bn Caspian seaport to increase trade with Iran, India and China” (검색일: 2020.09.20.); Poul Goble, “Its Caspian Sea Trade Cut by US Sanctions, Iran Turns to Railways—and Moscow Helps,” <https://jamestown.org/program/its-caspian-sea-trade-cut-by-us-sanctions-iran-turns-to-railways-and-moscow-helps/> (검색일:2020.09.20.).

13) David Svarin, “The construction of ‘geopolitical spaces’ in Russian foreign policy discourse before and after the Ukraine crisi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7, No. 2(2016), p. 132.

시아의 증가하는 경제력과 더불어 국가이익이 규정되면서 대외정책의 기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근외 유라시아 지역, 특히 캅카스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sup>14)</sup>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통용되었던 “유라시아”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해 왔다.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유라시아를 서구와 구분되는 러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인식해 왔는데, 최근 지정학적 신유라시아주의가 발흥하면서 유라시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색채가 더욱 뚜렷해진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정학적 신유라시아주의는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지역을 넘어서 인도양까지 그 공간을 확대해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서구에 대항하는 색채가 더욱 짙어져 심지어 러시아에 우호적인 유럽과 유라시아를 통일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혹은 독일, 이란, 일본, 러시아 동맹을 통해 미국, 영국, 중국, 터키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5)</sup>

그러나 이후 푸틴 정부는 유라시아를 더욱 전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기존 논의되던 유라시아의 범위를 축소해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라시아주의의 대가인 두긴은 중동과 인도까지 유라시아의 범위를 확장해서 바라보고 있으나 푸틴은 유라시아를 발트3국,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제외한 구소련 영토로 국한시키고 있으며, 이는 현재 유라시아연합(Eurasia Union: EAU)이라는 정책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sup>16)</sup> 이러한 푸틴 시기 유라시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에 따라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설명한 연구는 푸틴 시기의 유라시아 개념, 즉 구소련 지역을 유라시아로 보는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푸틴 시기의 유라시아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푸틴은 구소련 지역을 통상 지칭하는 유라시아를 핵심적 국익 지역으로 삼았으며,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러시아의 자립, 자존과 자위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확인받기도 하였다. 즉,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 강대국이라는 대외적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으며,<sup>17)</sup>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군사 훈련과 같은 공세적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이 지역의 질서를 지배하고, 관장할 수 있는 기동으로서의 러시아는 대내외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14) 고재남,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역사공간, 2019), pp. 99-144; 강봉구,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과 2012년 이후 대외정책의 영향 변수들,” pp. 175-178.

15) 김성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pp. 248-255

16) 정희석, “푸틴정부의 대내외정책에서의 유라시아주의적 경향성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7권,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4, pp. 89-102.

17) 강봉구,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과 2012년 이후 대외정책의 영향 변수들,” pp. 197-200.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강한 국가, 그리고 직접적인 강대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이와 같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규정하는 상수로서 유라시아의 개념은 너무 넓었으며,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완전한 신뢰받는 개념이 되지는 못했다.<sup>19)</sup>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라시아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라시아를 강력하게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푸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다각적이고 쌍무적인 관계를 통해 유라시아와의 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시작했다.<sup>20)</sup>

이에 따라,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통합하기 위해 수행했던 양자 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 여러 지역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은 모두 러시아가 푸틴 이후 규정했던 대외정책과 국가이익인 강대국 부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라시아를 통합함으로써 사실상의 러시아 제국을 위한 열망을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다.<sup>21)</sup>

이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자체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정체성으로 이어진다. 서방을 거부하고, 러시아 자체적으로 유라시아를 하나의 독립적 지역으로 인식, 유라시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역사와 가치를 지녔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sup>22)</sup> 다시 말해서, 자체적인 가치를 가진 유라시아를 통합함으로써 러시아가 지배적 위치에 등극하게 되면, 러시아는 세계적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관통하는 원칙은 강대국으로의 부상인데, 이를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외지역인 유라시아의 통합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기반하여,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모두의 중간지점으로써 독립적 지위를 수립하여 다시 한번 소련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와 러중 협력, 유라시아 개발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인식하는 이러한 점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러시아는 더욱 자

18) 우준모, “푸틴주의의 외교적 구현: 실재와 함의,” 『동유럽발칸연구』, 제43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9, pp. 139-142.

19) Timofei Bordachev, “Greater Eurasia and Russian Foreign Policy Priorities,” *Asian Politics & Policy*, Vol. 10, No. 4(2018), pp. 598-600.

20) 베엘레나, “러시아연방의 중앙아시아 정책: 유라시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 27-30.

21) Vladimer Papava, “The Eurasianism of Russian Anti-Westernism and the Concept of “Central Caucaso-Asia”,” *Russian Politics & Law*, Vol. 51, No. 6(2013), p. 49.

22) 김성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pp. 268-269.

세하게 유라시아를 통합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사용함과 함께, 통합을 어떻게 수행할지, 통합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해 왔다. 그러나 2014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시각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전 러시아는 제국적 시각에 기반하여 유라시아를 통합하기 위해 서방과 경쟁하는 것을 택했다면, 이후에는 서방과의 관계 대신에 유라시아에 집중하여 유라시아 지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성장이라는 실리에 집중, 이를 통해 통합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2014년 이전에 유라시아 지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거나, 2014년 이후에 통합을 지정학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2014년 이전에도 유라시아 지역에 지역 경제기구를 설립함으로써 어느 정도 유라시아를 경제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한 중요성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sup>23)</sup> 그러나 당시 러시아가 수행했던 경제적 통합 정책은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다고 평가되며,<sup>24)</sup> 러시아의 유라시아 근외지역 인식 자체가 서방에 대해 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sup>25)</sup> 사실상 유라시아 통합을 지정학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이후에도 러시아는 유라시아에서 군사적 통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유라시아 지역으로 초점을 옮길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유라시아 발전 프로젝트를 탄력있게 추진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유라시아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정학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26)</sup>

푸틴 이후 러시아의 부상과 함께, 푸틴의 대외정책이 유라시아주의로 정당화되면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옐친 시기 러시아가 서방 질서에 편입되는 방향을 택함으로써 러시아의 지위를 잃어버렸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인데, 푸틴 시기에 들어와 독립적인 유라시아의 위치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대외 정책을 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8년 조지아 전쟁은 러시아의 정체성이 이웃 국가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러시아의 제국적 열망 하에서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의지를 무력이라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다. 이는 또한 유라시아주의 자체의 확장적 시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제국적 확장에 있어 푸틴의 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시각을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sup>27)</sup>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5894](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5894)),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검색일: 2020. 12. 04.)

24) Glenn Diesen, “The Geoeconomics of Russia’s Greater Eurasia Initiative,” *Asian Politics & Policy*, Vol. 11, No. 4(2019), p. 580.

25) 김경순,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안보정책과 함의,” 『민족연구』, 제70호, 한국민족연구원, 2017, p. 99.

26) Glenn Diesen, *Asian Politics & Policy*, pp. 567-572

단순히 러시아가 독립적인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지만, 이는 다른 지역과의 완전한 단절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을 반대하는 서방 세력에 전쟁이라는 무력 수단을 통해서까지 저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스스로를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모두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자국을 유라시아에서 동서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와 같은 이미지 때문에 서방과 경쟁을 포함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반면,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의 제재에 직면하였고, 러시아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국의 중심 축을 아시아로 급격하게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환은 러시아에게 아시아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과거부터 러시아는 아시아지역의 증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아시아로의 전환이 러시아의 강대국 부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2014년의 크림 사태로 인한 충격은 아시아로 중심 축을 필연적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아시아 지역 발전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9)</sup>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유라시아의 개발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전환으로 설명되는데,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서 중국, 유라시아, 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점점 서방보다는 아시아로 중심 축을 옮기게 된 것을 의미한다.<sup>30)</sup>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지정학적으로 보았던 기존의 시각에서 지경학적인 시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의거하여 러시아의 지정학적 권력은 증가하였는데, 러시아는 전략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역 회랑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통합된 유라시아의 중심에 러시아를 위치시킬 수 있다고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 Economic Union: EEU)과 같은 국제 경제 기구를 다시 활성화시킴으로써 아시아지역의 발전을 통한 유라시아의 통합을 추동하고 있는 상황이다.<sup>31)</sup>

이처럼 러시아는 2014년 이전에는 무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유럽과 경쟁하려고 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독자적 극이 되기 위해 경제적 발전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유

27) Vladimer Papava, *Russian Politics & Law*, pp. 48-55.

28) David Svarin, *Journal of Eurasian studies*, pp. 134-138.

29) Alexander Lukin, Vladimir Yakunin, "Eurasian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siatic Rus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9, No. 2(2018), pp. 103-104.

30) Anastasiya Pyatachkova, Timofey Bordachev, "The Concept of "Greater Eurasia" in the Turn of Russia to the Eas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search Journal*, Vol. 13, No. 3(2018), p. 36.

31) Glenn Diesen, *Asian Politics & Policy*, pp. 567-579



라시아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러시아와 중국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Great Eurasia Partnership: GEP)을 발족하였는데, 이는 두 국가의 강화된 협력 관계를 서방을 비롯한 전세계에 알리고, 러시아가 단순히 유라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서방, 인도 등 지리적 파트너십 범위의 확장을 꾀함으로써 러시아가 여전히 유라시아 통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창조하고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3)</sup> 이뿐 아니라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중국과 급격한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있는데,<sup>34)</sup> 점점 두 국가는 서로 공유하는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sup>35)</sup> 이는 GEP를 설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기도 하다.<sup>36)</sup> 이와 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특히 서방으로부터의 고립으로 더욱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sup>37)</sup>

이와 함께 유라시아지역 개발을 위해 러시아는 지역기구를 활용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EEU를 강력한 러시아를 위한 토대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회원국들의 위치와 지위를 강화시키고 유라시아 국가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형상화되고 있다.<sup>38)</sup> 러시아와 중국의 국제정치적 의제 자체가 유라시아에서 인프라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기에, EEU와 같은 지역기구는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통합자, 지배자가 되어야 하고,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의 발전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요약하자면,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켰고, 유라시아주의와 유라시아라는 러시아의 정체성의 기본 가정은 그대로 둔 채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

32) Alexander Lukin, "Sino-Russian cooperation as the basis for Greater Eurasia," *Human Affairs*, Vol. 30, No. 2(2020), pp. 179-187: 2014년 이전 러시아는 서방의 확장을 경계하면서, 유라시아 통합을 통해서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정체성을 유라시아로 확장하고자 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서방과의 경쟁 보다는 중국과의 협력, 유라시아 통합을 기반으로 한 대유라시아 건설을 통해 독자적 극이 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2014년 이전에는 무력 사용과 동시에 유럽과 경쟁하고자 하였고, 이후에는 경제적 발전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환했던 것이다.

33) Nadège Rolland, "A China-Russia Condominium over Eurasia," *Survival*, Vol. 61, No. 1(2019), p. 9.

34) Paul B. Richardson, "Geopolitical cultures, pragmatic patriotism, and Russia's disputed island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9, No. 1(2018), p. 19.

35) Timofei Bordachev, *Asian Politics & Policy*, p. 603.

36) Alexander Lukin, *Human Affairs*, pp. 177-178.

37) Timofei Bordachev, *Asian Politics & Policy*, p. 603; Paul B. Richardso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p. 19; Nadège Rolland, *Survival*, p. 19; Vasily Erokhin, "Contemporary Reshaping of Eurasian Integration: Russia's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the EU and EurAsEC,"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 22(2015), p. 406.

38) David Svarin, *Journal of Eurasian studies*, pp. 134-138; Alexander Lukin, Vladimir Yakunin, *Journal of Eurasian studies*, p. 104.

39) Alexander Lukin, Vladimir Yakunin, *Journal of Eurasian studies*, p. 106.

단,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시각을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로 인한 서방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고립, 세계 경제·정치 중심지의 아시아지역으로의 이동은 아시아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 주었고,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인식을 지경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존에 존재하던 유라시아지역에서의 서방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과 함께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계기가 되었다.<sup>40)</sup>

### 3.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시각 변화에 대한 설명의 한계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가 제국주의적 시각을 통한 통합 보다는 유라시아를 개발함으로써 통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인프라를 포함한 전반적 분야에 대한 투자의 유치가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입장 변화가 이어지기 전에도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경제개발과 통합을 중요하게 바라봤지만,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정치경제적 중심지의 이동, 서방으로부터의 개입 등으로 인해 러시아가 유라시아로 시각을 이동시키면서 유라시아의 개발과 통합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라시아로의 전환은 서방과의 완전한 관계의 배제, 경쟁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인 중요성이 시각 변화 이전에는 통합을 통한 경쟁, 즉 서방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여 서방의 영향력 확장과 침투에 군사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하였으나, 시각 변화 이후에는 서방과의 경쟁에 군사적 수단을 강경하게 사용하기보다 경제적 발전과 투자에 기반한 통합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서방 정치·경제적 권력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이동,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으로부터의 제재와 고립이라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의 이동 상황에서 구소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을 확대하고, 이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 중국, 인도와의 파트너십은 물론이고 미국, EU와 같은 서방과의 협력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sup>41)</sup>

즉, 러시아가 유라시아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은 2014년 이전 통합을 통한 서방과의 경쟁, 통합을 위한 서방과의 경쟁이었다면, 2014년 이후에는 서방과의 관계보다는 경제발전을 통한 영향력 확대, 러시아의 강대국 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

40) 김경순,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안보정책과 함의,” pp. 99-101.

41) 위의 문헌, pp. 99-101.

정에서, 러시아는 서방과의 직접적이고 무력적인 경쟁을 선택하지 않고, 경제적 요인을 통한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되면서, 또한 러시아의 극동 발전에 있어서도 유라시아의 개발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sup>42)</sup>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의 경제적 투자와 협력 역시 배제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서방의 경제적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은 서방이 유라시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서방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선 기존 이론과 같은 설명은 러시아가 유라시아 통합, 유라시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행위 대부분에서 적실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검토했던 것과 같이,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지역기구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 파트너십 전략을 수행하고 있기에, 이런 정책들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상승했던 것에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지역의 정치적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기존의 설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카스피해 정책은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를 위한 협상을 20년간 끌어왔으며, 카스피해의 발전과 투자에 있어 협약의 타결은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라시아 지역의 개발 자체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스피해 협약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바라봤던 입장 역시 유라시아 통합을 바라봤던 시각을 설명하는 이론을 적용해 설명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협약 타결 이전 서방과 경쟁하는 측면에서 서방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였고, 서방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sup>43)</sup> 그러나 협약의 타결 결과, 러시아가 그동안 매우 반대했던 카스피해 해저 통과 노선을 연안국 양국의 협상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카스피해의 경제적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sup>44)</sup> 이러한 전환에는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입장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으로부터의 증가하는 고립과 아시아지역의 증가하는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의 카스피해 협약에서의 입장 변화는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입장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카스피해 협약에서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카스피해 해저 통과 노선의 허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방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카

42) Alexander Lukin, *Human Affairs*, pp. 181-182.

43) 제성훈,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제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보』, 제26권 제1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1, p. 138.

44)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p. 176.

스피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기존에 연구된 유라시아 통합을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 변화를 추적한 연구들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 해당 연구들은 서방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경제적 개입을 허용한 러시아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카스피해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은 유라시아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기존의 연구로 설명해야 하지만, 서방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가 왜 카스피해에서 입장을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를 종속 변수로,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입장 변화를 사용하여 종속 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독립 변수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장악에 대한 시각 변화”를 설정,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I.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

#### 1. 협약 체결 이전 러시아의 카스피해에 대한 입장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카스피해 지역 역시 자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역외 국가들의 카스피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각은 카스피해 협약 체결 이전에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이며, 카스피해 협약 전후의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자국의 시각에 따라 이를 실현하려는 방식과 환경이 달라진 것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카스피해에 대한 입장은 역외 국가의 카스피해 개입을 방지하여 자국이 가지고 있던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카스피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은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카스피해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어떤 노선을 통해 운송하는지가 카스피해의 정치적 갈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소련시절부터 유지해왔던 카스피해의 천연자원을 자국을 통해 유럽 등으로 운송하는 수송로를 유지하고자 하였고,<sup>46)</sup> 미국, EU와 같은 서방은 러시아가 아닌, 직접적으로 서방으로 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하면서<sup>47)</sup> 카스피해 역내, 그리고 강대국간 갈등이 지속

45) 제성훈,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제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p. 131.

46) 위의 문헌, p. 138.

되어 왔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지속적으로 역외 국가들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된 직후,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개발을 억제했고, 더불어 전면 공동이용을 제안하면서 서방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sup>48)</sup> 그러나 이후 아제르바이잔에 서방의 자본이 들어와 BTC 송유관을 건설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수송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러시아의 고위층으로부터 불만이 나오게 되었다.<sup>49)</sup>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에 서방의 자본이 개입되어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천연자원이 서방으로 수송되게 되면서, 러시아는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초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논쟁 중이던 카스피해 지위의 결정 전까지 개발을 반대하고, 공동이용을 제안하였지만, 이후 아제르바이잔에 서방 열강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과 협상을 통해 해저의 경계는 배타적으로 설정하고, 해수면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3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sup>50)</sup>

특히 러시아가 최소한 해수면에 한정되더라도 공동이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공동이용 자체가 갖고 있는 연안국 전체 관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카스피해에서의 행위에 반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카스피해의 공동이용은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저지할 수 있고, 역외 국가들의 군사력 배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 저지의 의미는 러시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유지할 수 있기에, 연안국들이 러시아 대신에 다른 파이프라인 노선과 시장을 찾는 것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최종적으로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과 투자 자체도 방지하는 것이 목표였다. 소련 붕괴 이후 약화된 러시아의 국력으로 인해 러시아의 줄기찬 공동이용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에 서방의 투자를 허용하긴 했지만, 서방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은 2018년 협약 전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왔고, 어느정도 관철해 오기도 했다.<sup>52)</sup> 러시아는

47) 김연규, 엄구호, “러시아, 미국, EU의 카스피해에너지 운송전략,” 『슬라브학보』, 제22권 제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7, pp. 190-191.

48) 정옥경,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p. 391.

49) Fatma Aslı Kelkitli, “Russia’s Caspian Policy: Efforts to Hold Ground in a Contested Region,” *Gazi Akademik Bakis Dergisi*, Vol. 12, No. 4(2019), p. 74;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p. 165.

50) 정옥경,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pp. 391-393; 이현아, 제성훈, “해양경제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p. 88.

51) 제성훈,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제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pp. 145-148.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을 위협으로 보고 있었고, 서방이 카스피해의 에너지 개발과 운송을 장악하는 것을 통해 카스피해를 지배하고 있던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었고,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 등 전체적인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53)</sup> 이에 따라 러시아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고가로 매입하는 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투르크메니스탄이 다시 러시아를 통해 가스를 수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시키기도 하였다.<sup>54)</sup>

따라서,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유지와 함께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안보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이용을 주장하는 등 카스피해를 통해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지키고 서방의 개입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오히려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결정되지 않고 논쟁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러시아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통해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 논쟁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sup>55)</sup>

## 2. 협약 체결 이후 러시아의 카스피해에 대한 입장 변화

2018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카스피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카스피해를 둘러싼 갈등은 종결되었다. 물론 이란이 아직 의회에서의 비준을 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소련의 해체 이후 지난하게 지속됐던 카스피해 갈등이 연안국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카스피해가 바다인지, 혹은 호수인지를 둘러싸고, 그리고 카스피를 둘러싼 천연자원을 배경으로 갈등이 있어 왔지만, 2018년 카스피해 협약을 통해 바다도 아니고, 호수도 아닌 중간 지위로 카스피해를 위치시키면서 그동안의 논쟁이 마무리되었다.<sup>56)</sup>

카스피해 협약에서는 카스피해를 특수한 지위로 규정하는데, 해상에서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나 나머지 지역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카스피해에 비연안국 군대가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군항, 군 시설 역시 카스피해에 설치

52) 이현아, 제성훈, “해양경제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pp. 90-91.

53) 김연규, 엄구호, “러시아, 미국, EU의 카스피해에너지 운송전략,” p. 195.

54) 이현아, 제성훈, “해양경제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pp. 90-91.

55) 정옥경,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p. 390.

56) 길윤형, “카스피해, ‘바다’일까 ‘호수’일까...주변국들 해법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7375.html> (검색일: 2020.09.20.).

할 수 없다. 이는 러시아와 이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카스피해에 역외 국가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해저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국가들이 양자 합의만 하면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인데, 2019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유럽 방향 파이프라인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던 점을 볼 때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sup>57)</sup>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기존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나타냈던 입장과는 다르며, 카스피해를 지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칙은 같지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방과의 갈등과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군사적, 안보적 측면에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개입 자체에 민감한 입장을 나타냈다면, 협약 체결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경제적인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이러한 지위를 통해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카스피해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스피해의 명확하지 않은 지위는 경제발전에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sup>58)</sup> 카스피해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카스피해 협약을 통해 카스피해에 상존하는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제거했고, 카스피해 연안과 유라시아 전반에서 투자와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카스피해 연안국들은 카스피해의 통합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는 카스피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경제적 동기는 이들에게 카스피해 인프라,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만든다.<sup>59)</sup> 특히 카스피해 협약은 투르크메니스탄에게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되면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서방의 광범위한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sup>60)</sup>

또한, 러시아는 카스피해에 서방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전환하여서, 2019년 카스피 경제 포럼(Caspian Economic Forum)에서는 도리어 외

57)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pp. 173-175; Mehmood-Ul-Hassan Khan, *Defence Journal*, pp. 75-76.

58)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pp. 176-177.

59) Asim Suleymanov,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Caspian States Cooperation,” <https://modern diplomacy.eu/2019/12/18/potential-for-development-of-caspian-states-cooperation/> (검색일: 2020.09.20.).

60) Mehmood-Ul-Hassan Khan, *Defence Journal*, pp. 78-81.

국민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외국인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천연자원을 이용한 사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sup>61)</sup>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와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수송로를 통한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여러 사업 역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의 흐름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러시아의 카스피해 항구인 카스피해의 석유를 수입, 이를 러시아 전역과 유럽으로 수송하기 위해 카스피해 항구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막대한 개발이 진행중인 마하치칼라에서는 수입되는 석유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sup>62)</sup> 더불어, 러시아는 카스피해와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해 카스피해와 아조프해를 잇는 운하를 개량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화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노력 역시 진행하고 있다.<sup>63)</sup> 또한, 카스피해를 남북으로 잇는 철도 노선, 카스피해를 동서로 통과하는 노선 역시 카스피해 협약의 체결로 활발한 논의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sup>64)</sup> 카스피해 협약의 체결로 인한 투자와 개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카스피해의 전면적 개발과 투자의 활성화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에서 변화된 시각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러시아가 인식하게 되었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으로부터의 고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권위가 상승하면서 서방과의 경쟁 혹은 관계를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보다 유라시아를 개발하여 유라시아를 통합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부상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의 변화 역시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을 바라보는

61) Apostolos Staikos, Katy Dartford, "Turkmenistan hosts the 1st Caspian Economic Forum focused on boosting industry, trade and tourism," <https://www.euronews.com/2019/08/19/turkmenistan-hosts-the-1st-caspian-economic-forum-focused-on-boosting-industry-trade-and-t> (검색일: 2020.09.20.).

62) Matthew Bryza, "The Greater Caspian region: A new Silk Road, with or without a new belt,"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he-greater-caspian-region-a-new-silk-road-with-or-without-a-new-belt/> (검색일: 2020.09.20.).

63) Global Constructtion Review(<https://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russia-approves-16bn-caspian-seaport-increase-trad/>), "Russia approves \$1.6bn Caspian seaport to increase trade with Iran, India and China" (검색일: 2020.09.20.).

64) Paul Goble, "Russia Now Losing Out to China on Iranian Rail Route," <https://jamestown.org/program/russia-now-losing-out-to-china-on-iranian-rail-route/>(검색일: 2020.09.20.); Paul Goble, "Its Caspian Sea Trade Cut by US Sanctions, Iran Turns to Railways—and Moscow Helps," <https://jamestown.org/program/its-caspian-sea-trade-cut-by-us-sanctions-iran-turns-to-railways-and-moscow-helps/> (검색일: 2020.09.20.).



시각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카스피해 협약 체결 이전 러시아가 카스피해에서 서방과의 경쟁을 진행하고, 서방의 개입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 카스피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카스피해 협약을 통해 경제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향적인 투자와 인프라 개선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러시아가 유라시아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추적한 이론은 카스피해에서 서방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카스피해 횡단 노선을 허용했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입장 변화 이론의 독립 변수를 추가하여 카스피해 입장 변화에서 나타난 러시아가 카스피해 해저 파이프라인을 허용했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전향적인 투자와 발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전 자체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현재로서도 이미 카스피해 지역에서 자국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 장악 인식을 독립 변수로 하여 카스피해 입장 변화와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IV. 러시아의 유라시아 개발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인식 변화

### 1. 유라시아 개발 활성화 이전 러시아의 유라시아 영향력의 한계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통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삼긴 했으나, 유라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고 러시아가 유라시아 통합을 위해 사용했던 여러 수단들은 그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더불어 러시아의 이와 같은 행보는 주변국들에게 제국주의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제국주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증폭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입장과 유라시아주의는 유라시아의 개념이 부담이 될 수 있기도 한 위험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65)</sup>

더불어 푸틴 초기 러시아에서는 유라시아 통합과 유라시아주의 모두를 받아들일 만한 국력이 없었으며, 러시아의 국력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몇 년 동안은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러시아의 제국주의 팽

65) 김성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pp. 275-277.

창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로 인해 주변국의 반감이 존재했는데,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연합을 먼저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러시아의 의도에 존재하는 패권적 성향을 열게 만들고, 유라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서야<sup>66)</sup> 유라시아연합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통합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고, 유라시아의 영향력 자체도 한정적이었다.<sup>67)</sup> 특히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을 위해 국제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양자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고,<sup>68)</sup> 통합 기구인 EEC는 일부에서 잠재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sup>69)</sup>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얼마나 지역에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대고 투자를 유치하느냐인데, 러시아의 능력의 부족은 인프라 개발에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다.<sup>70)</sup>

이처럼 2014년 러시아가 서방과의 경쟁을 끝내고 시각을 유라시아 자체로 전환하기 이전 유라시아 통합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유라시아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역시 잠재력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러시아 주도 유라시아 통합은 요원했다.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에 있어 지경학적 시각을 적용했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도리어 경제적인 투자를 우선시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 2. 유라시아 개발 시행 이후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인식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등이 대유라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유라시아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면서, 카스피해 교통은 더욱 개선되었고, 카스피해를 경유하는 교통 노선이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와 노선의 건설은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주었다. 카스피해의 남북 혹은 동서 관통 교통 노선 자체가 지경학적, 지정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최근 러

66) 김홍중, “유라시아주의의 제 양상: 지정학에서 지역주의로,” 『노어노문학』, 제26권 제1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14, pp. 296-299.

67) Peter J. Katzenstein, Nicole Weygandt, “Mapping Eurasia in an Open World: How the Insularity of Russia’s Geopolitical and Civilizational Approaches Limits Its Foreign Policie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5, No. 2(2017), p. 433.

68) 베엘레나, 러시아연방의 중앙아시아 정책: 유라시아주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pp. 42-67.

69) Vasily Erokhin, “Contemporary Reshaping of Eurasian Integration: Russia’s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the EU and EurAsEC,”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 22(2015), p. 408.

70) Alexander Lukin, Vladimir Yakunin, *Journal of Eurasian studies*, p. 105.

시아의 카스피해 동서 교통 노선을 건설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카스피해의 모든 노선이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편입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북캅카스 횡단 노선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즉, 러시아는 현재 카스피해에서 남북, 동서 노선 모두를 자국의 이익, 즉 영향력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이러한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sup>71)</sup>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횡단, 카스피를 횡단하는 노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라시아에서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아시아와 유럽간 화물 운송 시간을 줄일 수 있기에 이러한 프로젝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유라시아 내 인프라는 러시아에 매우 유리하게 점유되고 있고, 러시아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남북, 동서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노선들은 러시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sup>72)</sup>

특히 러시아는 카스피해 지역에서 항만의 개발 역시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러시아는 카스피해에서 항구의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스피해의 농산물을 포함한 에너지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이러한 항구 시설의 개선과 새로운 항구의 개발<sup>73)</sup>은 러시아가 카스피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욱 확신시켜 주고 있다. Nurkhodzha Akbulaev, Gadir Bayramli(2020)<sup>74)</sup>의 연구는 러시아의 이와 같은 시각을 뒷받침하는데, 경제 발전

71) Paul Goble, "Moscow Now Seeking to Make the Caspian Both a North-South and an East-West Hub," <https://jamestown.org/program/moscow-now-seeking-to-make-the-caspian-both-a-north-south-and-an-east-west-hub/> (검색일: 2020.09.20.); Paul Goble, "Its Caspian Sea Trade Cut by US Sanctions, Iran Turns to Railways—and Moscow Helps," <https://jamestown.org/program/its-caspian-sea-trade-cut-by-us-sanctions-iran-turns-to-railways-and-moscow-helps/> (검색일: 2020.09.20.); Paul Goble, "Moscow Plans to Expand Canal System Between Caspian and Azov Seas," <https://jamestown.org/program/moscow-plans-to-expand-canal-system-between-caspian-and-azov-seas/> (검색일: 2020.09.20.).

72) Andrei Kadomtsev, "Transport corridors in Eurasia: All roads lead to Russia," <https://modern diplomacy.eu/2019/12/01/transport-corridors-in-eurasia-all-roads-lead-to-russia/> (검색일: 2020.09.20.).

73) Global Construction Review(<https://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russia-approves-16bn-caspian-seaport-increase-trade/>), "Russia approves \$1.6bn Caspian seaport to increase trade with Iran, India and China" (검색일: 2020.09.20.); Matthew Bryza, "The Greater Caspian region: A new Silk Road, with or without a new belt,"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he-greater-caspian-region-a-new-silk-road-with-or-without-a-new-belt/> (검색일: 2020.09.20.).

74) Nurkhodzha Akbulaev, Gadir Bayramli, "Maritime transport and economic growth: Interconnection and influence (an example of the countries in the Caspian sea coast: Russia,

자체가 해양을 통한 운송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함으로써 카스피해, 유라시아의 상황과 비슷하게, 에너지 자원이 국가 권력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은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 운송을 강력하게 지배한다면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항만 개발은 다른 수송 수단과 함께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유라시아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 기업을 영향력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는데,<sup>75)</sup>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지배적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으며, 서방의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카스피해 해저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자 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이미 190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어<sup>76)</sup> 사실상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추진되면서, 서방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서방의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서방의 영향력이 자국의 개발 프로젝트들로 인해 차단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카스피해의 남북, 동서 수송로 모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서방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유라시아에서 러시아가 더욱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77)</sup>

---

Azerbaijan, Turkmenistan, Kazakhstan and Iran),” Marine policy, Vol. 118(2020).

75) Theodor Zima, “Putin’s energy: Which oil and gas projects might push geopolitical confrontation in Eurasia?” <https://moderndiplomacy.eu/2020/02/28/putins-energy-which-oil-and-gas-projects-might-push-geopolitical-confrontation-in-eurasia/> (검색일: 2020.09.20.).

76) Leo Kabouche, “The Energy Briefing: Despite Caspian Sea agreement, obstacles to Trans-Caspian pipeline remain,” <https://globalriskinsights.com/2018/09/despite-caspian-sea-agreement-obstacles-trans-caspian-pipeline-remain/> (검색일: 2020.09.20.); Leman Zeynalova, “Trans Caspian Pipeline would benefit both Turkmenistan and Azerbaijan,” <https://en.trend.az/business/energy/3150249.html> (검색일: 2020.09.20.).

77) Paul Goble, “Moscow Now Seeking to Make the Caspian Both a North-South and an East-West Hub,” <https://jamestown.org/program/moscow-now-seeking-to-make-the-caspian-both-a-north-south-and-an-east-west-hub/> (검색일: 2020.09.20.); Paul Goble, “Its Caspian Sea Trade Cut by US Sanctions, Iran Turns to Railways—and Moscow Helps,” <https://jamestown.org/program/its-caspian-sea-trade-cut-by-us-sanctions-iran-turns-to-railways-and-moscow-helps/> (검색일: 2020.09.20.).

## V. 결 론

러시아는 2018년 카스피해 협약에서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양국의 협정만으로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가 그동안 카스피해에서 보여왔던 입장과 반대되는 결정이었는데,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는 서방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이를 반대해 왔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러시아가 누리고 있던 유라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강대국 부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는데, 러시아가 줄기차게 반대해 왔던 카스피해 횡단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사실상 용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는 카스피해 지역에서 2003년 3국협정을 통해 기존 가지고 있던 카스피해 공동이용 입장을 전환시켰고, 2000년대 중반에는 아제르바이잔의 BTC 노선 건설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2018년과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고, 당시에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과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카스피해 지역 역시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러시아가 유라시아 통합과 관련하여 보여주었던 시각 변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에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를 설명한 연구의 틀 안에서 카스피해 입장 변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유라시아를 이용하고자 한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통합하고자 하였고, 스스로를 유럽과 아시아 모두의 구성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에서 서방과 경쟁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유라시아로의 서방의 확장은 러시아의 안보 이익과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기에 서방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2014년 이전 러시아는 유라시아를 안보의 시각에서 봤으며, 지정학적 시각에서 유라시아를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서방과의 경쟁보다는 유라시아의 개발과 발전을 통한 통합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유라시아의 개발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다양한 지역기구를 개량해 유라시아의 경제발전을 꾀함으로써 유라시아를 지정학적 시각으로 바라봐 유라시아를 러시아 중심으로 통합하고,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2014년 이전에도 유라시아지역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하였고, 경제 기구 중심의 통합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러시아가 더욱 고립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중심지

가 서방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계획이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즉, 러시아가 유라시아를 지정학적 시각에서 봤던 것이 지경학적으로 시각이 이동한 것은 러시아가 스스로를 서방으로부터 고립되었다고 인식하고, 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를 설명한 기존 연구를 통해 카스피해 입장 변화를 바라볼 때,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는 기존 카스피해에서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학적 시각에서 카스피해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했다면, 카스피해 협약을 협상하는 과정까지 더불어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지경학적 시각에서, 유라시아 통합을 통한 강대국 부상을 위해 더욱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각이 이동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는 아시아지역의 증가하는 정치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서방으로부터의 고립이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입장 변화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카스피해 협약에서 변화한 러시아의 입장 중 매우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양자간 협약으로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한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데, 특히 이는 서방의 영향력을 카스피해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영향력에 대한 자국의 인식이 변화하면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이 변화한다.”를 가설로 설정하여 러시아의 유라시아 영향력 인식의 변화를 독립 변수로 설정, 종속 변수로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 변화를 설정,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카스피해 입장의 변화에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자국이 유라시아 지역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을 때는 카스피해를 서방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 매우 지정학적인 시각에서 안보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지만, 유라시아를 장악할 수 있고 유라시아에 자국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카스피해를 서방에 대립하는 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카스피해를 지경학적 지역으로, 즉 카스피해를 유라시아 통합을 위해 경제적 발전이 선결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바라봄으로써 서방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영역에도 경제적 발전을 위해, 그리고 서방의 영향력이 투사될 수 없다는 예측 하에 서방의 경제적 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에 있어 자국의 시각을 변화시켰을 때, 서방으로부터의 증가하는 고립과 아시아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의 상승에 더불어, 자국

이 유라시아를 얼마나 장악하였고, 얼마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카스피해 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투자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항구 건설, 철도 건설 등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 역시 진행하면서 카스피해를 관통하는, 카스피해 지역의 교통 자체를 발전시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개발을 전후로 하여 유라시아의 수송망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여러 서방 언론에서는 카스피해 협약 체결을 통한 파이프라인의 건설 가능성을 타진하면서도 러시아의 카스피해 지역 영향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sup>78)</sup>

이와 같이, 러시아는 카스피해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자국이 충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카스피해 협약에서 입장을 변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카스피해 협약에서 러시아의 입장 변화는 카스피해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유라시아의 경제개발을 더욱 신경쓰고자 하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에서의 입장 변화와 궤를 같이하기에, 러시아의 유라시아 통합 입장 변화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지만, 러시아가 카스피해 협약에서 서방의 영향력이 침투할 수 있는 지점까지 허용하였다는 점은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가 최근 카스피해 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카스피해 협약에서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러시아의 카스피해 협약에서의 입장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2018년 체결된 카스피해 협약에서 왜 러시아가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그리고 서방의 영향력이 침투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설치를 명목상으로도 허용하였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카스피해 협약에서의 입장 변화를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변화를 설명한 기존 연구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향후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예측을 제공할

78) Leo Kabouche, "The Energy Briefing: Despite Caspian Sea agreement, obstacles to Trans-Caspian pipeline remain," <https://globalriskinsights.com/2018/09/despite-caspian-sea-agreement-obstacles-trans-caspian-pipeline-remain/> (검색일: 2020.09.20.); T.J. Sjostrom, "Will Turkmenistan Ever Supply Gas to Europe?" <https://thediplomat.com/2020/01/will-turkmenistan-ever-supply-gas-to-europe/> (검색일: 2020.09.20.); Matthew Bryza, "US foreign policy and Euro-Caspian energy security: The time is now to build the Trans-Caspian Pipeline,"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nergysource/us-foreign-policy-and-euro-caspian-energy-security-the-time-is-now-to-build-the-trans-caspian-pipeline/>(검색일: 2020.09.20.).

수 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향후 관계에 대한 예측과<sup>79)</sup> 러시아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입장 역시 본 연구가 기반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카스피해 협약에서 러시아의 입장 변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카스피해 입장 변화 자체를 유라시아 통합에 대한 시각 변화의 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시각에서 지경학적 시각으로의 변화의 틀 안에서 러시아의 입장 변화를 설명하였고, 따라서 러시아 내부의 국내적 요인은 다루지 않아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더불어, 본 연구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예측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유라시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카스피해 협약에서 러시아가 보인 입장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카스피해 연안국 혹은 유라시아 역내 국가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했다. 카스피해 협약은 카스피해 연안 5개국 모두의 노력의 산실이므로 이러한 측면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79)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 일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pp. 240-241.



## 참 고 문 헌

### 1. 저서

고재남, 『러시아 외교정책의 이해』, 서울: 역사공간, 2019.

### 2. 논문

강봉구,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과 2012년 이후 대외정책의 영향 변수들,” 『평화연구』, 제20권, 제1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2.

\_\_\_\_\_,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주요 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0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12.

김경순,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안보정책과 합의,” 『민족연구』, 제70호, 한국민족연구원, 2017.

김성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정책과 유라시아주의,” 『중소연구』, 제39권 제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6.

김연규, 엄구호, “러시아, 미국, EU의 카스피해에너지 운송전략,” 『슬라브학보』, 제22권 제4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7.

김홍중, “유라시아주의의 제 양상: 지정학에서 지역주의로,” 『노어노문학』, 제26권 제1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14.

배엘레나, “러시아연방의 중앙아시아 정책: 유라시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우양호, “‘바다’로 합의된 바다: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21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우준모, “푸틴주의의 외교적 구현: 실제와 합의,” 『동유럽발칸연구』, 제43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9.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이현아, 제성훈, “해양경제획정 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 카스피해와 북극해 사례를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9.

정옥경,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 『슬라브학보』, 제21권 제2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6

정희석, “푸틴정부의 대내외정책에서의 유라시아주의적 경향성 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7권, 제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4.

제성훈,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제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보』, 제26권 제1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1

Akbulaev, Nurkhodzha, Bayramli, Gadir, “Maritime transport and economic

- growth: Interconnection and influence (an example of the countries in the Caspian sea coast: Russia, Azerbaijan, Turkmenistan, Kazakhstan and Iran),” *Marine policy*, Vol. 118, 2020.
- Aslı Kelkitli, Fatma, “Russia's Caspian Policy: Efforts to Hold Ground in a Contested Region,” *Gazi Akademik Bakis Dergisi*, Vol. 12, No. 4, 2019.
- Bordachev, Timofei, “Greater Eurasia and Russian Foreign Policy Priorities,” *Asian Politics & Policy*, Vol. 10, No. 4, 2018.
- Diesen, Glenn, “The Geoeconomics of Russia’s Greater Eurasia Initiative,” *Asian Politics & Policy*, Vol. 11, No. 4, 2019.
- Erokhin, Vasily, “Contemporary Reshaping of Eurasian Integration: Russia's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the EU and EurAsEC,”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Vol. 22, 2015.
- Katzenstein, Peter J., Weygandt, Nicole, “Mapping Eurasia in an Open World: How the Insularity of Russia’s Geopolitical and Civilizational Approaches Limits Its Foreign Policies,”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5, No. 2, 2017.
- Khan, Mehmood-Ul-Hassan, “Economics of Caspian Sea,” *Defence Journal*, Vol. 22, No. 2, 2018.
- Lukin, Alexander, “Sino-Russian cooperation as the basis for Greater Eurasia,” *Human Affairs*, Vol. 30, No. 2, 2020.
- Lukin, Alexander, Yakunin, Vladimir, “Eurasian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siatic Rus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9, No. 2, 2018.
- Papava, Vladimer, “The Eurasianism of Russian Anti-Westernism and the Concept of “Central Caucaso-Asia”,” *Russian Politics & Law*, Vol. 51, No. 6, 2013.
- Pyatachkova, Anastasiya, Bordachev, Timofey, “The Concept of “Greater Eurasia” in the Turn of Russia to the Eas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Research Journal*, Vol. 13, No. 3, 2018.
- Richardson, Paul B., “Geopolitical cultures, pragmatic patriotism, and Russia’s disputed island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59, No. 1, 2018.
- Rolland, Nadège, “A China-Russia Condominium over Eurasia,” *Survival*, Vol. 61, No. 1, 2019.
- Svarin, David, “The construction of ‘geopolitical spaces’ in Russian foreign policy discourse before and after the Ukraine crisis,” *Journal of Eurasian studies*, Vol. 7, No. 2, 2016.

### 3. 기타 자료

길윤형, “카스피해, ‘바다’일까 ‘호수’일까…주변국들 해법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857375.html> (검색일: 2020.09.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5894](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185894)), “3기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검색일: 2020.12.04.)

하채림, “카스피해는 특수지위 바다”... 러시아 등 연안국, 활용원칙 합의(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0812052051108?input=1195m> (검색일: 2020.09.20.)

Bryza, Matthew, “The Greater Caspian region: A new Silk Road, with or without a new belt,”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he-greater-caspian-region-a-new-silk-road-with-or-without-a-new-belt/> (검색일: 2020.09.20.)

\_\_\_\_\_, “US foreign policy and Euro-Caspian energy security: The time is now to build the Trans-Caspian Pipeline,”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nergysource/us-foreign-policy-and-euro-caspian-energy-security-the-time-is-now-to-build-the-trans-caspian-pipeline/> (검색일: 2020.09.20.)

Global Construction Review

(<https://www.globalconstructionreview.com/news/russia-approves-16bn-caspian-seaport-increase-trad/>), “Russia approves \$1.6bn Caspian seaport to increase trade with Iran, India and China” (검색일: 2020.09.20.)

Goble, Paul, “Its Caspian Sea Trade Cut by US Sanctions, Iran Turns to Railways—and Moscow Helps,”

<https://jamestown.org/program/its-caspian-sea-trade-cut-by-us-sanctions-iran-turns-to-railways-and-moscow-helps/> (검색일: 2020.09.20.)

\_\_\_\_\_, “Moscow Now Seeking to Make the Caspian Both a North-South and an East-West Hub,”

<https://jamestown.org/program/moscow-now-seeking-to-make-the-caspian-both-a-north-south-and-an-east-west-hub/> (검색일: 2020.09.20.)

\_\_\_\_\_, “Russia Now Losing Out to China on Iranian Rail Route,”

<https://jamestown.org/program/russia-now-losing-out-to-china-on-iranian-rail-route/> (검색일: 2020.09.20.)

Kabouche, Leo, “The Energy Briefing: Despite Caspian Sea agreement, obstacles to Trans-Caspian pipeline remain,”

<https://globalriskinsights.com/2018/09/despite-caspian-sea-agreement-obstacles-trans-caspian-pipeline-remain/> (검색일: 2020.09.20.)

Kadomtsev, Andrei, “Transport corridors in Eurasia: All roads lead to Russia,”

<https://moderndiplomacy.eu/2019/12/01/transport-corridors-in-eurasia-all-roads-lead-to-russia/> (검색일: 2020.09.20.)

Sjostrom, T.J., “Will Turkmenistan Ever Supply Gas to Europe?”

<https://thediplomat.com/2020/01/will-turkmenistan-ever-supply-gas-to-europe/> (검색일: 2020.09.20.)

Staikos, Apostolos, Dartford, Katy, “Turkmenistan hosts the 1st Caspian Economic Forum focused on boosting industry, trade and tourism,”

<https://www.euronews.com/2019/08/19/turkmenistan-hosts-the-1st-caspian-economic-forum-focused-on-boosting-industry-trade-and-t> (검색일: 2020.09.20.)

Stein, Daniel D., “Trans-Caspian Pipeline—Still a pipe dream?,”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energysource/trans-caspian-pipeline-still-a-pipe-dream/> (검색일: 2020.09.20.)

Suleymanov, Asim, “Potential for Development of Caspian States Cooperation,”

<https://moderndiplomacy.eu/2019/12/18/potential-for-development-of-caspian-states-cooperation/> (검색일: 2020.09.20.)

Zeynalova, Leman “Trans Caspian Pipeline would benefit both Turkmenistan and Azerbaijan,”

<https://en.trend.az/business/energy/3150249.html> (검색일: 2020.09.20.)

Zima, Theodor, “Putin’s energy: Which oil and gas projects might push geopolitical confrontation in Eurasia?”

<https://moderndiplomacy.eu/2020/02/28/putins-energy-which-oil-and-gas-projects-might-push-geopolitical-confrontation-in-eurasia/> (검색일: 2020.09.20.)

<Abstract>

## Russia's Perception of Influence on Eurasia and Changing Position on the Caspian Sea

**Moogab S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y Russia has changed its position on the Caspian Sea Convention to allow cross-Caspian routes. The theory that explains Russia's change of position on Eurasian integration suggests isolation from the West and rising political and economic importance in the Asia-Pacific as cause, but fails to explain the cause of the change in position that could allow Western influenc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a change in Russia's perception on expanding Eurasia's influence as the cause of the change on its position on the Caspian Sea.

**Key Words:** Eurasia, Caspian Sea, Russia, Pipeline,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Caspian Sea